

#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저소득층 이용자의 식품만족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n Food Choice Satisfaction and Food Cost Reduction of Food Donation Program

이용재, 김양옥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Jae Lee(123peter@hanmail.net), Yang-Ok Kim(kyo52512@hanmail.net)

### 요약

기부식품제공사업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총 425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부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의 질적, 양적, 종류측면의 만족도와 그 요인을 확인하여 기부식품제공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식품질·양·종류의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이 저소득층의 식품이용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제공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전월세로 거주하여 별도의 주거비용이 들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기부식품의 양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월생활비와 월식료품비가 적은 저소득가정의 어려운 경우에 기부식품 질과 양·종류에 만족도가 높았다. 적은 양의 식품지원이라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부식품 이용특징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일수록 기부식품의 양·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만족도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기부식품 제공은 식품의 질과 양·종류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식품이용만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기부식품 | 푸드뱅크 | 푸드마켓 | 만족 |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kinds's satisfaction of donated food of low-income users and to propose reasonable suggestions to food assistant polic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level of quantitative is the lowest. Second, the quantitative and kind's satisfaction level of donated foods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 generally higher satisfaction level in the case charter or lent and poor health condit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donated foods i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show generally higher satisfaction level in the case low cost of living and foods. In general, low-income users in harsh environments show higher satisfaction all areas. Third, the result by features and satisfaction of food donated by the impact factor analysis, food market user's satisfaction of food is high more than food bank. In order to meet needs of various users, operational bodies need to put more efforts such as diversifying promotional strategies and developing programs and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formulate welfare budget to support such efforts.

■ keyword : | Donated Food | Food Bank | Food Market | Satisfaction |

접수일자 : 2014년 02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05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5월 29일

교신저자 : 김양옥, e-mail : kyo52512@hanmail.net

## I. 서론

경제위기 시기인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결식아동급식뿐만 아니라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식품관련 복지정책이 도입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 전체가구의 식료품비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빈곤계층의 식료품비는 감소하여 소득기준 계층 간 식료품비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의 식료품비는 전체 평균의 60.7%인 반면 2011년에는 51.8%였다[1]. 저소득층의 영양결핍도 심각하여 2005년 이후 4년간 영양실조나 영양결핍 등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만 2094명이었다[2]. 미국의 경우도 3,700만명이 식료품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로 저소득층의 39%는 식품보장이 부족하고, 36%는 매우 부족하다고 조사되고 있어서, 식품제공을 위한 기부식품 공급처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3].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결방안중에서 식품제공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소득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1998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푸드뱅크 1개소와 광역 17개소,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407개소 등 4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식품기부량은 2011년 1천억 여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4].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대표격인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먹거리를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먹거리 교환사업으로 2010년 이용자는 약 240만명에 이르며[5], 이러한 푸드뱅크의 단점을 보완한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매장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개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는 이화영[2]과 이인규[6]의 연구가 유일하고 단순한 실태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7][8]. 제공되는 기부식품 만족도 연구의 경우 단순 만족도 확인에 머무르고 있어 질과 양,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만족도 확인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식품의 질·양·종류의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고 요인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기부식품의 새로운 제공방식으로 푸드뱅크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확대가 예상되는 푸드마켓을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부식품지원정책에 대한 합리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기부식품제공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시작인 푸드뱅크에 대해 정무성 외[9]는 식품제조기업, 물류업체, 요식업체, 제과점, 개인 등 다양한 기탁처로부터 잉여식품을 제공받아, 빈곤계층 및 단기 혹은 장기적 결식대상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복지부[5]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식품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푸드뱅크는 기탁품 제공방식에 있어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일괄기탁과 일괄배분으로 인해 수혜자의 필요와 선호도의 미반영에서 오는 낙인감과 자괴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푸드마켓을 운영하게 되었다. 수혜자 중심의 푸드마켓사업은 잉여식품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음식물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실질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드뱅크의 긍정적 취지와 목적을 담고 있으면서, 개인의 욕

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10]. 보건복지부[5]는 푸드마켓을 기부식품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방문하여 식품·생활용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요컨대 푸드마켓은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 음식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존감 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음식을 지원받아 영양공급을 도우며, 이용자 중심의 배분방식으로 수혜자가 식품을 선택하여 일방적인 수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함께 포함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유주현[11]은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 및 기탁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식품나눔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5]도 ‘기부식품’이라 함은 기업 및 개인이 우리사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지원)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무상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자(푸드뱅크·푸드마켓)에게 기부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푸드뱅크 운동은 1967년 미국에서 Second Harvest(제2의 수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에서 도입하였으며 1986년에는 유럽 푸드뱅크연맹이 설립되어 각 국가별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편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오고 있다[12]. 우리나라는 초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는 환경문제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13], 1998년 보건복지부가 서울, 과천, 대구, 부산의 4개 지역에 푸드뱅크 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같은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푸드뱅크사업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14]. 그 결과로 1998년 10월 전국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이 확대되어 실시되어 현재는 ‘사랑의 식품기탁’, ‘잉여 식품의 나눔’, ‘음식물 쓰레기 감소’의 효과로 진행되고 있다[15]. 한편, 민간단체는 IMF 위기를 맞아 실직 노숙자와 절대 빈곤에 처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성공회 푸드뱅크와 먹거리 나누기 운동협의회 등이 1998년부터 푸드뱅크사업을 실시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도입

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 측면과 순수복지 체계로서의 복지적 측면을 모두 가진 복합적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운동차원에서 진행된 푸드뱅크는 돈이 아닌 식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식품 기탁자와 이용자를 연계시켜 주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다[16].

2002년도에는 기부식품 제공·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2006년 9월 푸드뱅크사업의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기탁촉진에 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사회복지 물적자원 전달체제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5]. 2013년 3월기준으로 전국 푸드뱅크 1개소와 광역 17개소, 푸드뱅크 280개소, 푸드마켓 127개소를 포함하여 총 425개에 이르고 있으며, 기부식품 균형배분을 위해 기부식품 물류센터 3개소가 운영중에 있다[4]. 식품기부량 및 이용자 연도별 운영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식품량 및 이용현황(단위: 백만원, 명, 개소)[16]

연도	기부액	배분액	이용자	개인이용자			단체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2008	49,138	40,245.27	66,590	47,255	226	9,152	9,957
2009	60,551	44,352.99	104,762	73,956	969	18,245	11,592
2010	72,655	47,120.29	139,234	91,017	6,041	30,243	11,933
2011	97,250	60,999.58	196,973	116,285	14,630	52,432	12,626
2012	116,300	66,349.82	244,709	123,737	23,348	84,810	12,814

기부식품지원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적으로 사업의 활성화방안이 대부분이고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하려는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정기혜[18]는 푸드뱅크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기부를 포함한 기부량의 증대, 냉장냉동제품을 포함한 기부식

품의 안전성 확보, 푸드뱅크별 특색있고 차별화된 발전 추구, 그리고 기부에 관한 사회적 혜택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계입[19]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생산단계와 연계,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대상계층을 확대, 영양소 섭취가 크게 부족한 식품류를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보편적 식품바우처를 운영을 제안하였다. 한편, 권순자·이선영[20]은 식음료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인지도와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푸드뱅크 이용율은 5.6%로 매우 낮았고 이용의향도 저조하여 향후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편익을 분석한 강혜승[21]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는 8,309백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며,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절감효과, 의료급여 예산감소 효과,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 점감효과, 민생안정효과 등 2차 효과와 영양결핍 아동의 행동수행 결함 개선효과, 운전자와 기탁자의 사회기여에 대한 만족감과 국가복지 증진 효과 등 계량화가 불가능한 3차 편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기부식품 이용에 대하여 드물게 만족도를 확인한 이화정[2]의 연구결과 이용대상자의 57%가 식품에 대한 충족도가 높았으며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9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족도 제고 방안으로 지원 식품종류의 다양성과 지원량 확대가 제시되었다. 운영기관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2010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순편익을 계산하면 08년에 6.5억, 09년에 9.5억, 2010년에 13억으로 3개년 동안 순편익이 29.2억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학술적 분석보다는 단순만족도분석이 일부 있는데 Feeding America[3]에 따르면 미국 내 기부식품 이용자의 93%가 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보고서 역시 기부식품의 질·양·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기부식품정책에 대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만,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저소득층의 식품선택 만족과 식료품비 절감에 미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조사대상과 분석틀

본 연구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를 전수조사하기에 유리한 C시 지역에서 기부식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푸드뱅크와 마켓담당자의 지원으로 이용자를 직접조사하여 300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기부식품 이용자의 이용금액 및 물품이용현황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시스템인 FMS의 공식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저소득층 이용자의 기부식품 이용에 있어서의 이용만족은 품질, 제공량, 종류의 세 영역에서 파악한다. 일반적인 식품만족은 전반적 만족를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지만[22], 본 연구는 저소득층 이용자라는 기부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철재[23]의 연구에서 활용한 품질과 브랜드의 다양성(종류)을 보완하여 제공량에 대한 만족도 포함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부식품 이용자의 품질·양·종류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경제적 특성에 따라 기부식품 이용자의 품질·양·종류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기부식품이용 특성에 따라 기부식품 이용자의 품질·양·종류 만족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용기관특성이 이용자의 품질·양·종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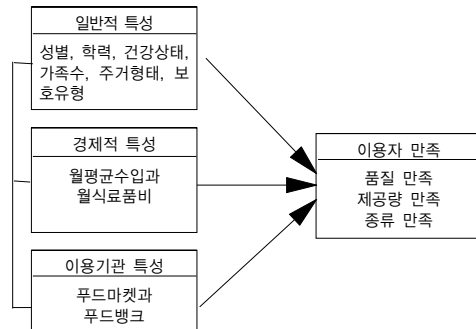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모형

2. 분석변수

본 연구는 기부식품제공을 받은 저소득층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첫째, 기부식품만족도로 품질과 제공량, 종류의 3분야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기부식품을 이용 하면서 식품의 품질에 만족한다”, “기부식품의 제공량이 충분하다”, “기부식품의 종류에 만족한다”에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식품이용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식품의 품질·양·종류로 만족을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기부식품 이용기관 특성으로 구분한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학력·건강상태·가족 수·주거형태·보호유형으로 구분하며,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수입·월평균생활비·월식료품비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기부식품 이용과 관련된 이용기관 특성으로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이다. 이 외에도 이용특성으로 교통편, 이용시간, 기부식품정보 경로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마련한 것이다[15][20][21].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 및 방법

영역	변수명	설 명
종속변수	이용 만족	품질만족, 제공량만족, 종류만족
	성별	남여
인구 사회적 특성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건강 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음, 대체로 건강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건강함, 매우 건강함
	가족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주거	전세, 월세, 자가, 무료임대
	보호 유형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독립 변수 경제적 특성	수입	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생활비	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식품비	20만원미만, 20-40만원미만, 40만원 이상
기부 식품 이용 특성	기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교통	도보, 버스, 택시, 기타
	이용 시간	15분이하, 16-30분이하, 31-45분이하, 46-60분이하, 60분초과
	정보 경로	공공기관, 주위사람, 대중매체, 타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관, 기타

IV. 조사 결과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연구대상은 여성 188명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하지 않음 107명과 보통 9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가족 수는 1명이 105명으로 가장 많아서 단독세대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 139명, 보호유형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 134명으로 대부분이 단순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 이용의 만족정도를 영역별로 보면 품질만족이 가장 높았고, 종류만족과 제공량 만족의 순이었다. 모든 영역에 대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제공량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소득층 이용자들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량의 확대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분석과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학력, 건강상태, 가족수, 주거형태, 보호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졸 및 대졸보다 무학·초졸·중졸인 경우가 비교적 품질만족이 높았다. 또한 건강하지 않을수록 품질만족이 높았으며, 전세와 무료임대인 경우에 월세와 자가보다 평균 만족도가 다소 높았고, 장애인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식품 제공량 만족도는 건강상태와 주거형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대체로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로 좋지 않은 경우에 기부식품 지원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나 무료임대와 같이 주거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월세나 전세와 같이 주거비 지출이 상당한 경우에 기부식품 지원량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그 외에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값의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높았으며, 수급권자 및 차상위인 경우가 다른 보호유형보다 비교적 제공량 만족이 높았다. 기부식품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과 주거형태에 따라서 통계적으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차이(단위 : 명)

구분		품질만족				제공량만족				종류만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성별	남	106	4.020	0.873	0.744 (0.458)	106	3.580	1.178	0.986 (0.325)	108	3.780	1.105	2.419 (0.016)*
	여	188	3.940	0.848		186	3.450	1.071		187	3.480	0.958	
학력	무학	36	4.080	0.692	1.443 (0.209)	35	3.460	1.010	0.989 (0.425)	36	3.560	0.909	0.254 (0.938)
	초졸	48	4.150	1.031		48	3.500	1.130		48	3.690	1.114	
	중졸	61	4.050	0.805		61	3.590	1.023		63	3.630	1.036	
	고졸	121	3.830	0.820		120	3.550	1.136		120	3.530	1.028	
	대졸 이상	23	3.910	0.900		23	3.040	1.331		23	3.610	1.033	
	기타	2	4.500	0.707		2	4.000	1.414		2	4.000	1.414	
건강 상태	전혀건강하지않음	53	4.060	0.969	0.629 (0.642)	53	3.490	1.187	2.679 (0.032)*	53	3.720	1.063	2.313 (0.058)
	대체로건강하지않음	107	4.020	0.812		108	3.430	1.121		109	3.500	0.968	
	보통	96	3.970	0.814		93	3.730	1.023		95	3.760	1.008	
	대체로 건강함	29	3.790	0.774		29	3.170	1.037		29	3.310	1.039	
	매우 건강함	3	3.670	1.155		3	2.330	0.577		3	2.670	0.577	
가족수	1명	105	3.990	0.904	1.222 (0.302)	104	3.380	1.091	2.090 (0.102)	106	3.580	1.050	0.886 (0.449)
	2명	54	4.130	0.754		53	3.750	0.959		53	3.700	0.972	
	3명	77	3.960	0.895		78	3.620	1.187		78	3.640	1.019	
	4명 이상	55	3.820	0.796		54	3.310	1.163		55	3.400	1.047	
주거 형태	전세	66	4.060	0.820	1.113 (0.344)	64	3.630	1.134	3.278 (0.021)*	66	3.650	1.116	2.724 (0.045)*
	월세	139	3.910	0.916		140	3.640	1.139		141	3.710	1.004	
	자가	32	3.840	0.847		32	3.280	0.958		32	3.470	0.879	
	무료임대	52	4.100	0.721		51	3.140	1.000		51	3.250	0.997	
보호 유형	독거노인	51	4.000	0.825	0.519 (0.722)	50	3.240	1.001	2.126 (0.078)	51	3.470	0.966	0.923 (0.451)
	장애인	15	4.200	0.676		15	3.270	1.100		15	3.800	0.941	
	한부모가정	58	3.900	0.718		58	3.470	1.127		57	3.420	1.017	
	수급권자및차상위	134	3.940	0.907		132	3.690	1.042		135	3.660	1.045	
	기타	35	4.060	0.998		36	3.310	1.390		36	3.670	1.069	

\*p< .05, \*\*p< .01, \*\*\*p< .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종류에 대해서 만족하였으며 주거의 경우는 제공량과 마찬가지로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전세나 월세주거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그 외에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건강하지 않을수록 종류만족이 높았으며, 보호유형에 따라서는 장애인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요컨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많은 저

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기부식품의 제공량과 종류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품질만족 차이분석결과, 월생활비와 월식료품비에 따라서 품질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월생활비와 월식료품비가 낮을수록 품질에 대한 만족이 높게

표 4. 경제적 특성에 따른 만족차이(단위 : 명)

구분		품질만족				제공량만족				종류만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월수입	50만 원 미만	77	4.170	0.880	1.762 (0.174)	75	3.390	1.114	1.687 (0.187)	77	3.710	0.998	0.325 (0.723)
	50~100만 원 미만	103	3.940	0.850		102	3.620	1.063		103	3.590	1.014	
	100만 원 이상	92	4.000	0.726		92	3.680	1.079		92	3.640	1.001	
월생활비	50만 원 미만	94	4.150	0.842	3.377 (0.036)*	95	3.640	1.120	2.676 (0.071)	94	3.760	1.054	3.374 (0.036)*
	50~100만 원 미만	109	3.990	0.811		109	3.660	1.056		109	3.640	0.958	
	100만 원 이상	66	3.800	0.845		65	3.290	1.114		67	3.340	1.023	
월식료품비	20만 원 미만	89	4.150	0.886	5.895 (0.003)**	89	3.610	1.114	3.643 (0.028)*	88	3.840	0.969	5.355 (0.005)**
	20~40만 원 미만	123	4.060	0.750		123	3.690	1.049		125	3.620	1.006	
	40만 원 이상	52	3.670	0.834		52	3.210	1.126		52	3.270	1.031	

\*p< .05, \*\*p< .01, \*\*\*p< .001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품질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공량 만족에 대한 차이분석결과, 월식품비가 제공량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4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보다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지출하는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월식품비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식품종류만족 차이분석결과, 월생활비와 월식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생활비와 월식품비가 낮을수록 종류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경제적으로는 생활비가 적고 식품비가 적은 저소득층 이용자일수록 기부식품의 품질, 량, 종류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기부식품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기부식품 이용 특성에 따른 품질만족 차이분석결과 이용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푸드뱅크 보다 푸드마켓 이용자들의 품질만족도가 높았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다른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를 받은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제공량 만족 차이도 푸드마켓을 이용한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그 외에도 제공량, 교통편, 이용시간, 정보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이용시간이 긴 경우, 다른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 제공량 만족도가 높았다. 종류에 대한 만족도도 푸드마켓을 이용할수록 종류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다. 정보 경로에 따른 종류만족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이용하게 된 경우 종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식품선택의 폭이 좁은 푸드뱅크보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품질과 제공량, 종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기부식품 이용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기부식품 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분산팽창계수)값이 10이하, Tolerance(공차한계)값이 0.1이상으로 나타나서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식품제공 식품품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회귀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483, p=.166). 독립변수중에도 품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기부식품제공 제공량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306, p=.000). 분석결과 이용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 5. 기부식품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차이(단위 : 명)

구분		품질만족				제공량만족				종류만족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p)
이용기관	푸드뱅크	128	3.800	0.897	-2.934 (0.004)**	128	2.820	1.061	-10.970 (0.000)***	130	3.230	1.046	-5.626 (0.000)***
	푸드마켓	166	4.100	0.803		164	4.030	0.825		165	3.870	0.912	
교통편	도보	38	3.870	0.963	0.630 (0.533)	39	3.180	1.189	7.895 (0.000)***	38	3.370	1.076	1.975 (0.141)
	버스	187	4.010	0.849		185	3.690	1.036		188	3.680	0.990	
	기타	69	3.910	0.818		68	3.160	1.154		69	3.480	1.066	
이용시간	15분 이하	41	4.100	0.889	0.593 (0.668)	42	3.330	1.319	4.585 (0.001)***	41	3.410	1.322	3.354 (0.011)**
	16~30분 이하	65	3.890	0.850		64	3.310	1.125		65	3.450	1.090	
	31~45분 이하	81	3.960	0.813		81	3.640	0.979		81	3.560	0.837	
	46~60분 이하	53	4.040	0.831		54	3.960	1.098		54	4.040	0.910	
	1시간 초과	47	3.870	0.947		44	3.160	0.963		47	3.530	0.952	
정보경로	공공기관	150	3.890	0.886	1.690 (0.169)	149	3.210	1.160	17.426 (0.000)***	149	3.440	1.016	6.087 (0.001)***
	주위사람 권유	36	4.060	0.754		36	3.750	0.841		36	3.670	1.042	
	타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기관	71	4.140	0.816		70	4.200	0.809		71	4.000	0.910	
	기타	28	3.860	0.932		28	3.000	1.018		30	3.300	1.055	

\*p< .05, \*\*p< .01, \*\*\*p< .001

표 6. 기부식품 제공이 이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구분	품질만족			제공량만족			종류만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1)	-.011 (.125)	-.006	-.086 (.932)	-.058 (.139)	-.026	-.416 (.678)	.138 (.140)	.067	.987 (.325)
	학력	-.077 (.061)	-.105	-1.258 (.210)	-.068 (.068)	-.072	-1.004 (.317)	m-.036 (.069)	-.042	-.525 (.600)
	가족수	-.103 (.059)	-.158	-1.732 (.085)	-.058 (.068)	-.069	-.865 (.388)	m-.151 (.067)	-.198	-2.268 (.024)***
	주거형태 (전월세=1)	.089 (.195)	.035	.455 (.650)	-.005 (.216)	-.001	-.021 (.983)	.065 (.218)	.022	.299 (.765)
	건강상태	-.028 (.070)	-.032	-.397 (.692)	-.010 (.078)	-.008	-.123 (.903)	-.076 (.078)	-.074	-.968 (.334)
경제적 특성	월수입	.002 (.002)	.077	.745 (.457)	.003 (.003)	.099	1.088 (.278)	.004 (.003)	.153	1.538 (.126)
	월식료품비	-.002 (.003)	-.057	-.714 (.476)	-.005 (.003)	-.123	-1.781 (.077)	-.003 (.003)	-.087	-1.133 (.259)
이용기관 특성	이용기관 (푸드뱅크=1)	-.169 (.135)	-.095	-1.244 (.215)	-1.151 (.151)	-.506	-7.627 (.000)***	-.496 (.152)	-.240	-3.269 (.001)***
상수	4.476 (.260)		17.203 (.000)***	4.413 (.290)		15.236 (.000)***	4.237 (.292)		14.504 (.000)***	
수정된R 제곱	0.019			.270			.099			
F	1.483(0.166)			10.306(0.000)			3.759(0.000)			

\*: p< .05    \*\*: p< .01    \*\*\*: p< .001

나타났다. 즉,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일수록 제공량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월식료품비도  $p < 0.1$  수준에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어서 식료품비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제공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가 적을수록 기부식품을 통해서 제공받는 식품양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식품종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759, p=.000$ ). 분석결과 가족 수(-), 이용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 수가 적을수록, 푸드마켓을 이용할수록 종류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이용하는 식품의 종류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푸드마켓은 스스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종류만족이 높은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기부식품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기부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의 만족도와 그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지역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방문하는 이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부식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선택과 양, 종류 모든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만족의 종류별로는 선택과 종류에 비하여 제공량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기부식품 제공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판단된다. 기부식품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요인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기부식품 만족도 차이 분석에서 학력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주거형태가 전세·월세로 비용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량과 종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주거비용 지출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들일수록 기부식품지원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월생활비가 적은 경우, 월식료품비가 적은 경우에 식품의 질, 양,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모



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저소득층이지만 이들중에서도 생활비나 식료품비가 적은 극빈층의 경우 기부식품의 질과 양, 종류에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셋째, 기부식품 이용 특성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따른 연구결과 푸드뱅크보다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 품질, 제공량,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일지라도 공급자나 지원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기부식품 이용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 일수록 식품 제공량과 종류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기부식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보통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만족도 평균은 품질과 종류에 비해서 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의 제공량이 부족한 것이다. 부식품 종류의 다양성과 지원량 확대, 안정적인 배분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충분한 식품량과 종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식품공급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23]. 실제로 미국 내 기부식품 이용자의 38%가 18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둘째, 이용자들의 식품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식품의 품질, 종류, 양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기부식품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듯이, 현재 시군구별 1개소에 그치고 있는 푸드마켓의 수를 늘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사회복지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은 단지 기탁식품을 후원받아 수혜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이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부식품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The Global FoodBanking Network[24]는 이용자들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조사된 점과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전국단위 조사를 통하여 기부식품의 이용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계임, 황윤재, 이동소, *식품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농업전망2013, 2013.
- [2] 이화정, “식품기부사업의 효과성 연구 : 비용편익 분석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2집(2012년 9월), 2012.
- [3] Feed America, *Hunger in America 2010 : Executive Summary*, 2010.
- [3]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2013.
- [4]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안내*, 2012.
- [5] 이인규, *서울시 푸드마켓 이용자의 만족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3.
- [6] 박효양, *푸드마켓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8.
- [7] 정기혜, *푸드뱅크(Food Bank)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140, 2011.
- [8] 정무성, 김종승, 양용희, *기업의 식생활품 기탁참여 활성화 방안-푸드뱅크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국푸드뱅크, 2004.
- [9] 한재량, *지역사회조직화의 실천사례에 관한 연구 : 관악사회복지의 네트워크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0.
- [10] 유주현,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사업의 기업기탁 증대방안 연구*, 인천대 석사논문, 2010.
- [11] 정무성, *푸드뱅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12] 유기영,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 [13] 정기혜, 박수천, 김영래,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14] 홍민아, 조미나, 강혜승, 양일선,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푸드뱅크(food bank)사업의 운영형태 및 특성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11권, 제5호, 2006.
- [15]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2000.
- [16]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nsw.bokji.net>)
- [17] 정기혜, “푸드뱅크(Foodbank)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40호(2008년 6월), 2008.
- [18] 이계임, 황윤재, 이동소, 김가영, 이윤나, 김기량,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19] 권순자, 이선영, “대전지역 외식·급식업체의 푸드뱅크 인지도 및 이용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6호, 2004.
- [20] 강혜승, 양일선, 이영선, “푸드뱅크(Foodbank) 사업 수혜자의 실태 분석 및 이용편의 평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8권, 제2호, 2003.
- [21] 신미혜, 오상현, 황대용, 서수석, 김영철, “SNS 특성이 농식품 콘텐츠의 소비자만족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2012.
- [22] 최철재, “식품소매점 이미지 구성요인과 만족, 신뢰, 충성도 간 구조적 인과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2013.
- [23] Feed America, John Cook. K, Jeng, Child Food Insecurity : The Economic Impact on our Nation, May, 2009.
- [24] The Global Food Banking Network, Making a World of Difference, 2013.

저 자 소 개

이 용 재(Yong-Ja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김 양 옥(Yang-Ok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천안시청 통합 사례관리사

<관심분야> : 사례관리, 기부식품